

## 尹 “오월 정신 완성 위해 광주 경제발전 이뤄야”

### 5·18 43주년 기념식

“5·18은 헌법정신 그 자체” 강조  
기념식 여·야 정치권 대거 참석  
오월 어머니 재조명 헌정 공연도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5·18 유족과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 시민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관련기사 2·3·4·5·6·16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의 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오월 어머니’ 15명을 직접 맞이한 뒤,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 해에 이어 2년째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강조했다.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라는 문구는 지난해 기념식에 이어 이번에도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월의 정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광주·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호남권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사 내용과 같이, 실제 광주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2020~2024년)사업에 이어,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2단계(2025~2029년)사업의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 최고의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실증도시를 구현해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한국형 인공지능(AI) 밸리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관련 용역 착수에 이어 조만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 등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념사 도중 ‘오월의 어머니’들을 향해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면서 “애절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를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은 참석자 모두가 함께 일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은 굳게 권 주먹을 흔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14명과 대통령실의 수석 및 비서관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90여 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도 대거 기념식에 참석해 열사의 희생과 5월 정신을 기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5월 18일 오후 5시18분 ‘민주의 종’ 타종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등 참가  
오월정신 계승 기원 33차례

광주시는 18일 오후 5시 18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민주의 종 타종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민주의 종 타종식’은 낮 12시 개최했으나, 5·18정신의 의미를 한층 되새기기 위해 올해는 오후 5시 18분에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매일 오후 5시 18분에 나오는 시계탑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르골 소리에 맞춰 묵념과 제창을 하고, 5·18정신 계승과 나눔·연대의 오월 광주정신이 전국·세계화로 확산되길 기원하며 33차례 타종했다.

이날 타종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 정홍식 광주지방보훈청장 등이 참여했으며 오월광주와 5·18정신 연대 강화를 위해 홍순백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상임부회장,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최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 상임위원장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와 진현경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이사, 강성구 6·10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등 전국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함께했다.

특히故 안병하 치안감 자녀 안호재씨와故 김사복 택시기사 자녀 김승필씨, 전일빌딩 탄흔조사에 참여한 김범수 광주시 친수공간과 주무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故 이해린씨 아버지 이종민씨, ‘청춘대학도시 광주영상공모전’ 대상 수상자 이해령 전남대생, 광주과학기술원(GIST) 케냐 유학생 엘비씨 등이 특별 초청돼 타종식의 의미를 더했다.

‘민주의 종’은 임진왜란과 한말의 의병정신, 일제강점기의 광주학생독립의거, 5·18민주화운동 등 빛나는 광주정신이 후대에 길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05년 10월 건립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Sulwhasoo

###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공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라면제조(피부)연구소(서울) 시험기간: 2021년 03월 03일 - 2021년 05월 03일